

# 성인 여성의 연령에 따른 복식색채 선호에 대한 연구\*

- Street Color Research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lor Preference of Women's Wear\*

- by the Method of Street Color Research -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조정미

Clothing & Textiles Major, School of Human Ecology, Catholic University  
Jung-Mee Cho

##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결과 분석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lor preference of women living in Seoul, to provide materials which is useful for setting up the color plan for a better costume, and to suggest new information in the apparel study. This study is done on the basis of color preference only by age and the range of this study restricted on womens' clothe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1,100 young adult women and 1,244 elderly women photographed in the street. The data are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preference of chromatic color and achromatic color, tint and tone, pattern of textiles are different mainly by age.

1. Elderly women prefer achromatic colors to chromatic colors. The most preferred achromatic color is black, especially elderly women prefer black.
2. Analysis of tint shows that blue, red and yellow red are commonly preferred by women. Especially blue is preferred by young women ; red and yellow red are preferred by elderly women.
3. Analysis of tone shows that vivid, pale, dark tones are commonly preferred by women. Especially vivid tone is preferred by elderly women, while pale tone is preferred by young women
4. Analysis of pattern of textiles shows that, pattern textiles are preferred by elderly women rather than by young women. The most preferred pattern for elderly women is a flower pattern, and for young women a stripe pattern.

key word : stree color research, color preference, women's wear, age.

거리 색채 조사, 색채 선호도, 여성복, 연령.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 I. 서 론

인간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색채는 매우 감각적인 요인으로 우리의 정서 상태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모두 색채를 배제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의복에 있어서 색은 가장 표현력이 큰 요소이면서 가장 먼저 지각되는 디자인의 한 요소이다. 이처럼 복식 색채는 중요한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요소이며 디자인이 지난 표면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Chamber(1951)는 의복색은 착용자 개인의 성격, 연령, 성별 등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김순애(1987)는 복식의 색채는 개인의 기호, 개성, 심미안, 심리 상태, 문화적 배경 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현대에 와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 산업이 점차 대량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품화하려는 상품기획(fashion merchandising) 활동이 패션 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의류상품 기획에서 색채기획은 가장 초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이때, 소비자들의 색채 기호에 대한 잘못된 정보 분석은 상품기획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오늘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기성복 시장에 맞추어 소비자의 색채 기호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자료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최근 소비자의 의복색채 기호나 색채가 주는 인상형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색채 선호도나 인상형성에 대한 연구로는 고애란(1990), 이주현(1990), 김인수(1985), 김순애(1987), 정삼호(1987, 1990), 백선원(1990), 조희련(1993), 석재은(1993), 성희진(1994), 은영자·박소희(1996), 이해숙·김재숙(1998), 김영인, 추선향, 조민정(1999)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색채기호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설문지와 색채 견본(color

chip), 기타 자극물을 통한 심리학적 접근이나 여성 접지를 통한 복식사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복식에서 색채기호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주어진 색채는 그것이 쓰여진 경우에 따라 다른 반응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색채에 대한 반응을 연구할 때 단순히 색채 견본이 추상적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색은 실제 생활 상태에서 볼 때와 같은 구체성이 없어지게 된다(Amheim R, 1981). 따라서 착용자가 선호하는 의복의 색채에 대한 연구는 실제적으로 의복을 착용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집단의 의복 색채기호를 착용자가 자의에 의해서, 또 어떠한 상황적 조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측정함으로써, 과거의 색채 견본에 의한 추상적인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성복 업계의 색채기획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지역 여성들의 의복색채 선호 경향을 알아본다. 둘째, 여성의 20-30대, 40-50대 여성들의 복식색채 선호 경향의 차이를 알아본다. 세째, 부가적 관심으로 복식 문양 선호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색채 기호

기호는 좋다, 싫다 어느 한 쪽으로 정해지는 것이나,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하나의 지향·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빨강색이 기호색이라 해서 빨강색 의복만 제작한다면 돋보이게 하는 색이 없으므로 빨강색도 팔리지 않게 된다(小林重順, 1965)

색채의 다양한 표현력과 더불어 색채에 대한 기호는 각기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색채의 좋고 싫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많은 연구를 통하여

여러 요인들의 영향으로 각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집단 공통의 색채기호와 편견이 있다(정지현, 1983)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색채 기호에 대한 학설은 일반적으로 Trey와 Birren, F의 학설에 따라 크게 지역설, 민족설, 연령설, 제품설, 소득설, 교양설, 유행설(김용훈, 1987)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역설은 한 지역의 태양광선의 조사시간과 그 빈도수에 따라 색채기호가 달라진다는 학설로 Cayghill(1980)은 사계절에 따른 패션 컬라 그룹을 제시하였다. 민족설은 세계 여러 민족의 독자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학설로 일반설, 피부색설, 전통설로 구분된다. Berry & Martin(1991)에 의하면 집단적인 색채의 선호현상은 그 사회의 민족적 문화 규범이나 전통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에 들어간 색채는 대부분 애국심과 자긍심을 나타내는 선호색채이다. 또한 김영자(1989)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색채 기호 차이를 지역적 특성과 민족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연령설은 생득설과 습득설로 구분되는데 생득설은 다시 유형설, 생리학설, 성별설로, 습득설은 교양설과 소득설로 세분될 수 있다.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색채기호의 차이를 조사한 일본 색채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남자는 파랑, 초록색 계통이 여자는 빨강, 보라 계통의 색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남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낮은 명도, 낮은 채도의 색을, 여자는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명도의 색을 좋아하고, 연령이 많을수록 낮은 명도, 낮은 채도를 즐기는 경향이 있었다(김용훈, 1987).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박현일(1989)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 고등학생들은 파랑, 녹색, 노랑, 흰색의 순으로 선호하고 여자 고등학생들은 녹색, 흰색, 파랑, 노랑 순으로 선호하여 색채 기호에서 남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득설과 교양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섬세한 색채 계통을 좋아하고 색채기호는 훨씬 차분해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저소득층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색채나 채도가 높은 색을 선호한다(김용훈, 1987).

제품설은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의 색채 선호가 달라진다는 학설이다. 어떤 제품의 색채가 시야에 포착되는 순간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그 색이 덮고 있는 형상이나 물건의 특질이 우리 머리 속에 전달되어지고 그 이미지와 소비자가 제품에서 원하는 이미지와 일치 될 때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향이 강한 제품을 원할 때는 어두운 계열이 더 선호되고, 약한 제품에서는 밝은색의 포장이 더 선호되었다(Susan & Martin, 1997). 이러한 경향은 의복에서도 적용되고 있어서 고애란(1990), 이주현(1990)등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스타일의 의복이라도 색상에 따라서 인상형성이거나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설은 색채감정의 변천이라고 할 수 있는 유행현상에 의해서 색채기호가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野村順一, 1979)으로 과거에는 다양한 문화나, 사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유행설을 설명하였으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색채기호를 좌우하는 종래의 민족적, 지역적, 인종적 요인보다는 유행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높다(성희진, 1994). 유행색이란 국제 유행색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Fashion and Textile Colours)를 기반으로 패션정보 연구 기관, 원료, 소재 전시회, 제품 전시회, 패션쇼등이 제시하는 색채이다(이호정, 1995). 한 시즌의 유행 색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신선하게 하며 새로운 시대감을 표현하며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 복식의 색채기호는 유행설이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성희진, 1994).

그러나 위와 같이 색채기호의 다양한 특성을 주장하는 어떤 하나의 요인보다는 이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특정 집단의 일관된 색채기호를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

## 2. 복식 색채기호

연령과 선호색에 대한 연구로서 백선원(1989)은 연령별 여성의류의 색채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20대의 경우 유행색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30, 40대의 경우 고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50대의 경우에는 한색계열을 선호하였다. 일반적인 혐오색은 연령과 무관하게 주목성이 강한 고채도의 순색을 혐오하였다. 기호의복색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 없이 일차적으로 계절적 감각에 따라 의복색을 선택하였으며, 이차적으로는 20대의 경우에만 정장과 평상복의 색상이 유행색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 뿐, 연령 증가에 따라 사회 심리적인 측면이 강한 정장의 경우, 보수적이고 지적인 중간색 계열을 선호하였으며, 자기 PR과 자아만족의 측면이 강조되는 평상복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고채도, 고명도의 색상과 유행색상을 선호하였다. 강순희, 박준경(1987)은 노년층 복색 기호조사에 대한 연구에서 50대이상 중년층은 보라색을 선호하였다. 정삼호(1990)는 성인 여성의 직물표본에 의한 색채선호와 의복 스타일에 따른 색채 및 배색 선호간의 비교연구를 한 결과 투피스의 경우 20대는 카나리아색, 연한 하늘색, 30대는 초록, 연한 하늘색, 40-50대는 짙은 보라를 가장 선호하였다. 은영자, 박소희(1996)는 대구 지역에서 20대 남녀의 의복색상 선호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20대는 기본적인 원색보다는 파스텔계나 베이지 계와 같은 중간색과 무채색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이는 유행 경향과 일치했다.

William 등(1980)의 연구에서는 청년기 여성의 배색선호도는 유사배색, 단색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대비조화에서는 삼각대비조화를 선호하였고 보색대비조화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나 아주 낮았으며 오히려 근접보색 조화가 보색조화보다 선호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성희진(1994)은 여성잡지 속에서 현대 한국 여성 양장에 나타난 색채와 문양의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이 선호하는 정장의 스타일은 무지의 밝고 경쾌한 인상을 주는 비비드톤의 것이지만 무채색이나 주조색의 조화를 사용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문양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이고 포멀한 스타일의 선호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거리 색채 조사방법(Street color research)

본 연구에서 의복 색채 조사방법은 선택된 지역에서 직접 착용자의 의복 색채를 조사하는 거리 색채조사방법(Street color research)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조사지역 내에서 많은 사람이 통과하는 한 지점을 정하고, 숨겨진 카메라에 의해 그 지점을 통과하는 사람이 착용한 의복의 색채를 사진 촬영에 의해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단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의 의복 색채 샘플을 얻을 수 있고 조사 대상자에게 작위적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 대상자의 학력, 생활수준과 같은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촬영장소는 우선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단시간에 많은 피험자를 촬영할 수 있는 백화점을 기본 장소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소득 차이에 의한 색채 선호 효과의 편협화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은진(1996)의 서울시 백화점의 지역별 특성과 소비자 구매형태에 대한 연구와 백화점의 비공개 자료를 참고로 고객의 소비수준이 상·중·하로 분류 되는 압구정동 갤러리아, 명동 롯데, 영등포 롯데 백화점의 3곳을 선정하였다.

촬영은 1998년 5월 18일에서 5월 22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피험자는 연구자가 지정한 위치를 위 시간대에 통과하는 20대에서 50대 여성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피험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었다. 각 조사지역의 카메라 설치장소 선정은 촬영대상자가 촬영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대상자가 햇빛을 정면에서 받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였다. 시간에 따른 빛의 위치의 변화는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여 최대한도로 일정한 빛 방향(대상자의 정면)을 위치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정면 촬영이 되지 못한 사진들은 제외시켰다. 모든 촬영장소에서 본 촬영직전에 기준색표를 촬영하고 이것을 현상시 기준샘플로 사용하여, 현상에 의한 색 오차가 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카메라 각도가 변할 때마다 기준색표를 다시 촬영하여 오차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한 자료만 사용하였다.

## 2. 색채 판독 및 분류

색채 판독은 각 조사 대상자의 상의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늬가 들어간 옷은 따로 분류하여 부가적 관심으로 연구하였다. 색채의 분류는 Munsell 표색계를 기초로한 KSCP-A-0011(한국 표준색 설계기준)의 물체색의 색이름 구분에 의거하여 유채색(Chromatic color)과 무채색(Achromatic color)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유채색은 빨강(R), 주황(O:YR), 노랑(Y), 연두(GY), 녹색(G), 청록(BG), 파랑(B), 남색(PB), 보라(P), 자주(RP)의 10색상으로 분류하였다.

색조(Tone)는 한국공업규격 KS에 의한 색조와 수식어 분류(KBS 한국색채연구소, 1994)를 기초로 하고 기타 복식 디자인 관련 자료(이호정, 1996; 이경순, 김희섭, 1998)를 참고로 의류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10개의 색조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색조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약자 및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v(vivid:해맑은), b(bright:밝은), p(pale:아주연한), lt(light:연한), dl(dull:칙칙한), dp(deep:짙은), dk(dark:어두운), ltg(light greish:밝은 회), g(greish: 회), dkg(dark greish:어두운회)의 10개의 색조로 분류하였다. 무채색은 흰색(White), 검정(Black), 회색(Grey)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사진에 대한 색채 판독은 색채샘플(한국표준색표집, 1990 : 색채I, 1994)을 사용하여 직접 대조 후 3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판독하여 기초 데이터화 하였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독이 불명확한 자료는 분석시 제외시켰다.

이렇게 얻어진 양적 자료는 빈도 분석과 백분율,  $\chi^2$  검증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대상 및 표본 추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

여 명동과 영등포의 롯데 백화점 앞, 압구정동의 갤러리아 백화점 앞 등의 세 곳에서 모두 2,92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 중 고등학생, 노년층(할머니) 등과 연령대 구분이 명확치 않은 자료를 제외시킨 2,495명의 사진에 대한 색채 판독 작업을 하였다. 촬영된 사진 중 촛점이 맞지 않거나 노출의 분량으로 인해 색채 판독이 불가능한 자료에 포함된 피험자 115명을 1차적으로 제외시키고, 전문가 3인에 의한 색채 판독중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모호하다고 판정되는 36명을 2차적으로 제외시켜 총 2,344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의 연령 분포를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2, 30대 여성인 1,100명, 4, 50대 여성 1,244명이었다. 지역별 표본추출 비율은 2, 30대는 명동 롯데 백화점앞이 358명, 영등포 롯데 백화점앞이 404명,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앞이 338명이었고, 4, 50대는 명동 롯데 백화점앞이 386명, 영등포 롯데 백화점앞에서 436명,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422명이었다.

##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를 실행함에 있어 조사 대상자의 상의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정장과 캐주얼 스타일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는 조사시간이 낮이었고 특정 상황을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스타일이 섞여 있었고, 최근의 유행 경향이 어떤 아이템으로보다는 이미지나 분위기로 정장과 캐주얼을 구분하는 성향이므로 정장과 캐주얼의 기준을 명확히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실제로 본 연구는 패션에 활발히 반응하는 20대 청년층과 점차 반응력이 떨어지는 40대 중장년층의 색채선호를 보다 확실히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으나, 본 연구 방법상 피험자의 개인적 자료를 얻기 힘들어서 연령 구별을 연구자의 외모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최근 캐주얼한 패션의 유행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자기 연령 대보다 훨씬 짊어보이는 추세이므로 연구 방법상 소수의 사람들은 연령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분석시 연구대상의 구분을 실제 연

구는 20대와 40대 위주임에도 20대에는 30대를 40대에는 50대를 확대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조사 기간이 1998년 5월 18일에서 5월 21사이의 초여름의 날씨에 한정되어 있어 계절적 영향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를 확대 해석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IV. 결과 분석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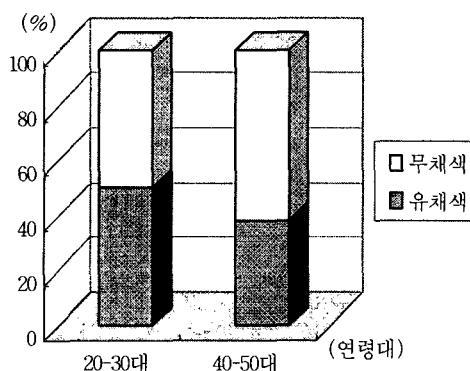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여성 2,344명을 대상으로 거리 복식 색채 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무지의 복식을 착용한 1,759명을 대상으로 하여 색채 선호도를 유채색과 무채색, 유채색은 다시 색상, 색조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부가적 관심으로 문양이 있는 복식 착용자 585명의 문양 분포를 분석하였다. 논의 순서는 우선 서울 지역 여성 전체에 대한 복식 색채 선호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연령대별로 나누어 연령에 따른 복식 색채 선호 경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유채색과 무채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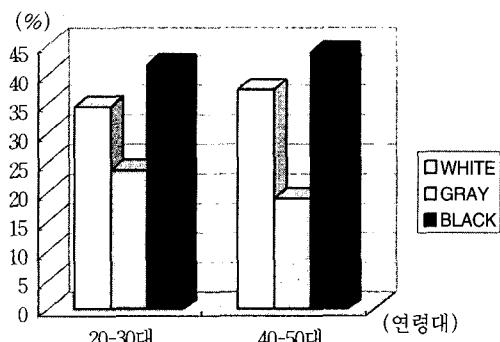
성인 여성의 무채색과 유채색의 착용 분포를 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 1,759명 중 55%가 무채색을

45%는 유채색을 착용하여, 무채색이 많이 유행되고 있는 '98 S/S 패션 트렌드의 전반적인 경향을 잘 보여 주고 있었다.

연령별로 분석한 <그림 1>에 의하면 20-30대 968명 중 유채색이 50.4%, 무채색이 49.6%로 유채색과 무채색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으나 40-50대에서는 총 791명 중 유채색이 38.4%, 무채색이 61.6%로 무채색의 착용자가 유채색의 착용자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이는 젊은이들의 복식이 티셔츠나 점퍼 등 가벼운 스포츠 웨어풍의 캐주얼 웨어가 많이 착용되면서 밝은 유채색의 복식이 많이 착용되는 반면 중년이후의 여성들의 재킷과 같은 좀더 격식을 차린 아이템의 착용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착용된 무채색을 다시 명도에 따라 크게 흰색, 회색, 검정 3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에 의하면 무채색을 착용한 967명 중 검정색을 착용한 사람이 4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흰색으로 36%가 착용하였으며, 회색은 21.3%가 착용하였다.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도 착용 빈도는 젊은 층이나 중년층 모두 검은색, 흰색, 회색의 순서로 많이 착용하였으나, 20-30대는 회색의 착용율이, 40-50대는 흰색과 검은색의 착용율이 서로의 연령대에 비교 했을 때 조금 더 높았다. 또한 조사 시기가 초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였던 관계로 검은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도가 높은 회색과 흰색을 합한 비율이 검정색을 착용한



<그림 1> 유채색과 무채색의 연령별 분포 :  
 $\chi^2 = 25.243$ ,  $p < .001$



<그림 2> 연령대별 무채색 착용분포 :  
 $\chi^2 = 16.43$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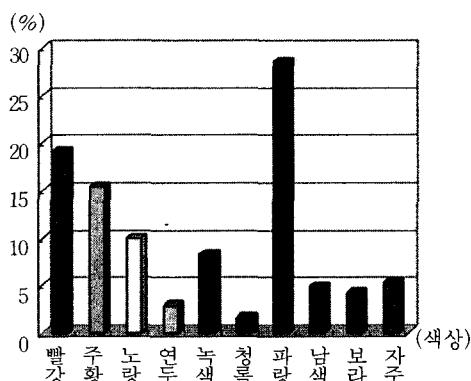
비율보다 많았다.

## 2. 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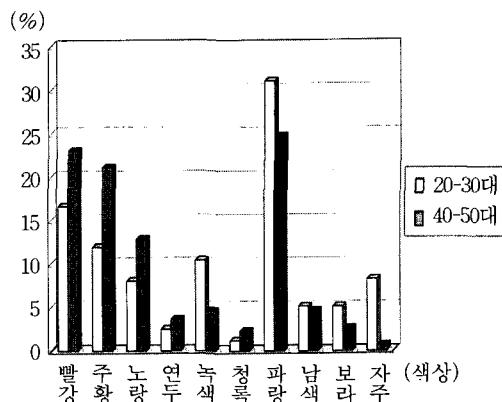
조사 대상자중 유채색을 착용한 792명의 복식의 색상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의하면 파랑, 빨강, 주황 계열을 28.5%, 19.1%, 15.4%순으로 많이 착용하였으며, 청록 계열이 1.6%, 연두 계열이 2.9%로 가장 적게 착용되었다.

색상 착용 빈도를 연령별로 분석한 <그림 4>에 의하면 20-30대는 파랑계열을 40-50대는 빨강 및 주황계열을 더 선호하였다. 반면 20-30대에서는 청록과 연두계열의 착용자가 적고 40-50대에서는 자주, 보라, 청록 등의 착용자가 적었다. 이 결과는 강순희, 박중경(1987)<sup>27)</sup>, 정삼호(1990)<sup>10)</sup> 등의 연구에서 중장년층에서 보라색계열을 선호 한다는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각 연구에서 조사방법의 차이 즉 컬러 샘플에 의한 선호색상과 실제 착용한 복식 색상 선호도의 차이일 수도 있고, 백선원(1989)<sup>12)</sup>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유행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20대들이 '98 S/S 유행경향에 따라 40-50대에 비해 보라색과 핑크 계통을 상대적으로 많이 착용했기 때문인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또한 색상을 난색계(자주, 빨강, 주황, 노랑, 연두)와 한색계(녹색, 청록, 파랑, 남색, 보라)로 나누어



<그림 3> 유채색의 색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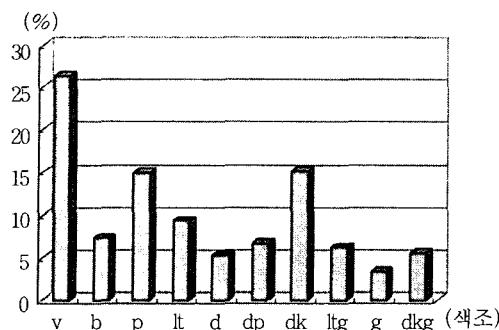


<그림 4> 연령별 색상 분포 :  
 $\chi^2 = 54.26, p < .001$

분류하였을 때 20-30대는 52.8%가 한색 계열을 40-50대는 61.2%가 난색 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선원(1989)의 연구에서 50대의 경우 한색 계열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와 연령이 많을수록 낮은명도, 낮은 채도의 색상을 선호한다(박은주, 1998)는 종래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40-50대 여성들은 밝고 화사한 빨강과 노랑계열의 난색을 선호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시기인 초여름의 계절에 따른 영향과 최근 우리나라의 컬러 T·V의 시청과 다양한 문화 수준의 향상에 따른 중장년층의 색채 선호의 다양화 경향 등으로 풀이 될 수 있다.

## 3. 색조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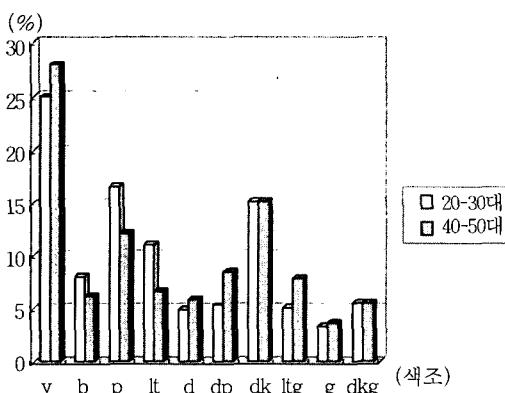
조사 대상자중 유채색을 착용한 792명의 색조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5>과 같다. <그림 5>에 의하면 비비드, 다크, 폐일의 색조가 각각 26.3%, 15.1%, 13.2%의 순으로 다른 색조에 비해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여성 착용자들은 봄, 여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밝고 강한 색조인 비비드, 밝고 연한 색조인 폐일 등의 색조가 우세한 반면 동시에 최근 무채색 유행의 강세에 따라 짙고 어두운 다크 색조를 동시에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채도의 칙칙하고 어두운 그레이쉬와



&lt;그림 5&gt; 유채색 착용자의 색조 분석

덜의 출현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주로 가을과 겨울을 나타내는 중간 색조 분위기가 초여름의 분위기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착용자들이 기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색조 착용 분포를 연령별로 분석한 <그림 6>에 의하면 20-30대 여성은 비비드, 페일, 다크의 순서로 40-50대는 비비드, 다크, 페일 순서로 다른 색조에 비해 착용율이 컸다. 또한 각 연령별 색조에 따른 착용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20-30대의 여성들의 비비드색조의 착용율이 25%인 것에 비해 40-50대는 28%로 중장년층 여성들이 비비드색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페일색조는 20-30대가 16.6%로 40-50대의 12.2%보다 더 많은 비율로 착용하였다. 또한 이 색조들보다는 출현율이 떨어지는



&lt;그림 6&gt; 연령별 착용 색조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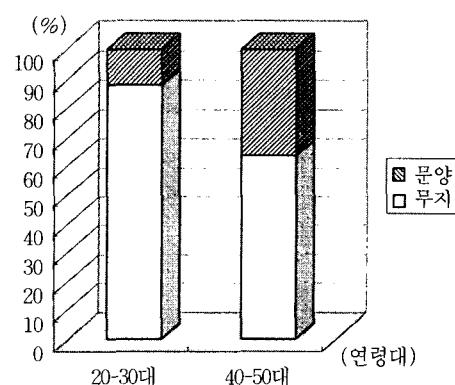
$$\chi^2 = 15.73, p < .05$$

브라이트, 라이트 등에서도 20-30대 여성에서 이 색조들의 착용 비율이 40-50대 여성에서 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은영자, 박소희(1996)의 연구에서 20대는 기본적인 원색보다는 파스텔계나 베이지계와 같은 중간색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 4. 문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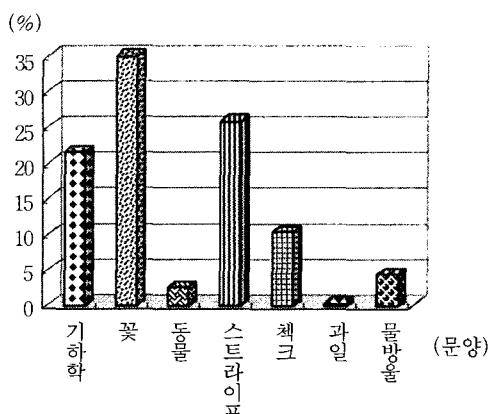
본 연구의 부가적 관심으로 무지 및 문양 직물에 대한 선호도 비교 및 문양이 있는 직물의 복식을 착용한 여성들의 문양의 종류 및 분포를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자 2,344명중 1,759명(75%)이 무지의 의복을 착용하였으며, 585(25%)명이 문양이 있는 직물의 복식을 착용하여 전반적으로 무지 또는 문양이 없는 의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것을 다시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인 <그림 7>에 의하면 20-30대는 88%가 무지를, 12%가 문양이 있는 직물을 착용하였고, 40-50대는 63.6%가 무지를, 36.4%가 문양이 있는 복식을 착용하여 연령 대가 높을수록 문양이 있는 직물의 의복을 선호하며, 젊은층일수록 단색의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자가 착용한 문양 종류를 분석한 <그림 8>을 보면 꽃문양을 34.9%로써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다음은 스트라이프 문양이 25.8%,



&lt;그림 7&gt; 연령별 무지와 문양의 착용 비율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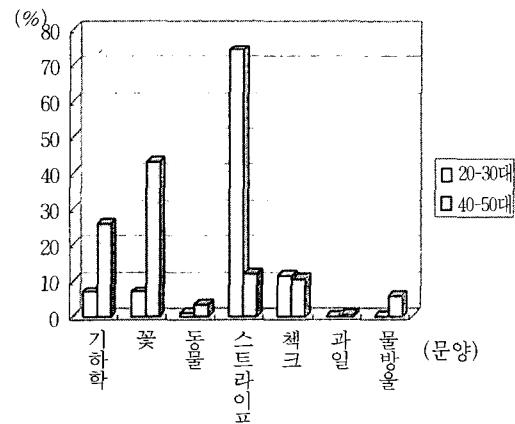
$$\chi^2 = 185.8, p < .001$$



〈그림 8〉 문양 분석

기하학 문양을 21.6%의 순으로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한편 과일 문양이나 호피, 얼룩말의 무늬 등을 일컫는 동물문양, 물방울 문양등의 착용이 매우 적었다.

문양이 있는 직물의 착용 분포를 연령별로 다시 분석한 결과인 〈그림 9〉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선호 문양의 차이가 있었다. 20-30대는 스트라이프와 체크 무늬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스트라이프는 문양 직물의 착용자중 74.2%가, 체크는 11.4%가 사용하여, 이 두 문양을 합하면 20-30대의 85.6%가 스트라이프와 체크를 착용하였다. 이는 젊은 층들이 캐주얼 남방을 선호하고 이 아이템에서 스트라이프와 체크 문양이 트래디셔널(traditional)한 스타일로 널리 선호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반면 과일과 물방울 문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동물 문양은 0.8%에 불과해 20-30대의 문양 선호 분포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에 대비해 40-50대의 문양 선호 경향은 젊은 층보다는 덜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장년 층의 43.1%가 꽃 문양을 선호하였다. 다음으로는 25.8%가 기하학 문양을 11.7%가 스트라이프 문양을 선호하였다. 또한 젊은 층에서 착용되지 않았던 물방울과 과일 문양도 각 0.4%, 5.7%가 착용하고 있었다. 중장년 층은 젊은 층에 대비해 꽃과 기하학 문양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중장년 층이 캐주얼 남방보다는 여성스러운 블



〈그림 9〉 연령대 별 문양 분석 :

$$\chi^2 = 220.99, p < .001$$

라우스 스타일을 많이 착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문양의 색채분석은 워낙 다양한 색상들이 한 문양 안에 사용되고 있어서 어떤 분석 기준을 세울 수 없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사진을 문양별로 놓고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면 젊은층들이 많이 입는 스트라이프 문양은 맑고 명랑한 비비드나 페일 등 의 색조조합이 우세하였다. 반면 중장년층에서 많이 착용된 꽃문양은 꽃무늬 자체는 핑크나 붉은 계통의 밝은 색을 사용하였으나 바탕색을 어둡게 사용하여 화사하면서도 좀더 점잖은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보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여성의 연령대별 복식 색채의 선호 경향을 조사한 연구이다. 선호도 조사방법은 조작된 환경이나 색채 샘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복을 착용한 조사 대상자를 거리에서 사진 촬영에 의해 직접 조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연령대별 색채 선호 경향이 뚜렷이 보여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령대별 여성복의 복식색채 선호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채색과 유채색의 착용 분포를 보면 20-30대

는 유채색과 무채색의 착용 비율이 비슷했으나 40-50대는 무채색의 착용자가 유채색의 착용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 중장년층일수록 무채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을 명도차에 따라 검정, 흰색, 회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모든 연령층에서 검은 색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으며 다음으로 흰색, 회색의 순서로 선호하였다. 연령간의 선호를 비교하였을 시에는 20-30대는 회색계열을 40-50대는 흰색과 검은 색을 더 선호하였다.

둘째, 유채색의 색상별 착용분포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파랑, 빨강, 주황계열을 선호하였으며, 연령대 간에 비교시 파랑계열은 20-30대가 빨강 및 주황계열은 40-50대가 더 선호하였다.

셋째, 유채색의 색조별 착용 분포 결과에 의하면 밝고 강한 색조인 비비드, 밝고 연한 느낌의 폐일 색조와 짙고 어두운 다크 색조가 동시에 선호되었으며, 연령대 간에 비교시 40-50대는 비비드를 20-30대는 폐일 색조를 더 선호하였다.

넷째, 일반적으로 문양이 있는 복식은 40-50대가 더 선호하였으며, 20-30대는 스트라이프, 체크 문양을 40-50대는 꽃, 기하학 문양을 선호하였다.

이 결과들은 매년 제시되는 유행색 경향과는 별도로 각 패션 브랜드의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정확하고 세부적인 톤과 색상기획에 보다 명확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각 색상별 생산량 조절 등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것이라 사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진행 과정상 초여름에 국한되어 계절 변인의 영향을 밝히지 못했으며, 국내에서의 유행색 수용 정도가 복식색채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복식색채 선호도 연구는 시계열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의한 연구와 유행색이 착용자의 복식색채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B. G. Chamber, Color and design, NY : Prentic Hall, 1951, 109.
- 2) Susan Berry & Judy Martin, 김미자 역, Designing with Colour, 서울:예경, 1997, 8.
- 3) Willians J., Abaugh J. & Rucker M., Clothing color preference of adolescent females, H.E.R.J., 9(1), 57-63, 1980.
- 4) 小林重順, チサ仁のための色彩心理, 東京:誠信書房, 1965, 92-95.
- 5) 野村順一, 商品色彩論, 東京:干倉書房, 1979.
- 6) 고애란, Suit의 색과 신체 노출이 정숙성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7) 공업진흥청, 한국방송공사, 한국표준색표집, 1990.
- 8) 강순희, 박준경, 우리나라 노년층의 복색 기호조사, 주간심유, 6월, 1987.
- 9) 강혜원, 의상 사회심리학(2판), 서울:교문사, 1995.
- 10) 김화중 역, Birren, F., 색채심리, 서울:동국출판사, 1989
- 11) 김순애, 아동복의 색채와 기호색에 대한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
- 12) 김영인, 추선향, 조민정, 아동복색채선호에 대한 연구, 복식, 42, 59-68.
- 13) 김영자, 한국 복식미의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14) 김인수, 색채가 의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5) 김용훈 편저, MERCHANDISING을 위한 색채상품 개발론, 청우, 1987, 17
- 16) 박영순 · 이현주, 색채와 디자인, 교문사, 1998, 9.
- 17) 박은주, 색체조형의 기초, 서울:미진사, 1998, 284
- 18) 백선원, 여성의류의 색채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19) 석재은, 성인여성의 자아개념과 의복색채선호도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20) 성희진, 현대 한국 여성에 나타난 색채와 문양의 기호도에 관한 연구-1961-1990-년간의 잡지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4.
- 21) 아른하임, R. 김춘일 譯, 미술과 시지각, 서울:홍성사, 1981, 448-449.
- 22) 은영자, 박소희, 20대 남녀의 의복 색상 선호에 관한 연구-대구 시내를 중심으로-, 복식 문화연구, 4(3), 305-323.
- 23) 이경손, 김희섭,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서울:교문사, 1998, 117.
- 24)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25) 이정희, 한국인과 미국인 여대생의 의복색상 선호도 비교 연구, 誠心外專論文集, 8, 593-625, 1989.
- 26) 이호정, 복식디자인, 서울:교학연구사, 1995, 190-193.
- 27) 이혜숙, 김재숙,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 (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2(5), 597-606, 1998.
- 28) 조민정, 김영인, 국내 섬유 패션업계의 색채사용 체계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1998, 606-616.
- 29) 조희련, 색채 기호도와 이미지에 관한 조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30) 정은진, 서울시 백화점의 지역별 특성과 소비자 구매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31) 정삼호, 성인여성의 의복에 대한 색채 및 배색 선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논총, 1, 1987.
- 32) 정삼호, 성인여성의 직물표본에 의한 색채선택과 의복스타일에 따른 색채 및 배색 선호 간의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 논총, 1990, 4, 55-74.
- 33) 정지현, 색채기호와 색연상에 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26.
- 34) KBS한국색채연구소, 색채 I, II, 1994.